

만남

07

2022

통권 58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2 영락청년선교비전 개최

“Run On,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

청년회(회장 박종훈)는 5월 20일(금)~22일(주일)에 “Run On,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라는 주제로 청년 선교비전을 개최했다.

청년들은 대회를 앞두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새벽행진〉으로 준비했고, 금요기도회, 후원선교사 중보기도회, 찬양말씀집회 등으로 믿음의 행진을 진행했다. 주일에는 베다니광장에서 일일 카페와 청년회 후원 해외선교사께 보내는 편지 쓰기(사진) 행사를 가졌다. 이어 찬양예배 시 선교비전 예배를 드렸다.

청년들은 오는 8월 16~20일 2019년 이후 멈췄던 청년회 하기 선교봉사를 재개하여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행진을 다시 이어간다.(관련기사 14~17면)

제공 김효진 성도(청년회 부회장)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취하면 좋겠습니다!! 김운성

특별 인터뷰 04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김성수·송경희

땅끝까지 이르러 08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간구합니다 김무섭
10 탈북 중 하나님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문해성
12 관심과 베품도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이용택
13 기나긴 여정을 성경 읽고 버텼습니다 구○○

다음세대 14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린 청년부 새벽행진 이강호
16 우린 쉬지 않으리 나광호
18 취업에 실패했다고요? 주재성

영락의 울타리 21 성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상담 강승훈
24 똑똑! “여기가 국제예배인가요?” 김윤기
26 제가 다닌 영락 영아부에 제 두 딸이... 김예성
28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오계환
30 내적성숙을 위한 영성수련 김동환
32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진하여 가다 박일수
35 일찍 온 여름철, 건강관리 이렇게 합시다! 최현희

문화광장 38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할렐루야찬양대 송재봉·곽선미
40 메타버스와 교회 강명구
44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야기 신주현
45 산천 김인용

교회소식 46 안수집사회 말씀묵상수련회 외
50 7월 목회력
51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52 교육부 여름사역 / 산상기도회

표지설명



초여름의 싱그러움 속에 기도원 팔복기도처. 홀연히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촬영 윤재기 장로(영락기도원장)

취하면 좋겠습니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11:27)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에 한 여인의 감격에 겨운 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낳아 키웠는지 궁금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녀는 음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뛰어난 인재를 자녀로 둔 부모를 부러워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여인의 감탄은 단지 마리아에 대해 부러워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경탄을 금치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녀는 예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에 취했습니다.

은혜에 취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시절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사경회로 모인 날이었습니다. 대학 채플은 교회 예배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비기독교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줄거나 책을 보는 학생도 많고, 마침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르르 일어서서 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강사님께서 설교와 기도를 마쳤는데도 나가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니다. 2~3분 지나도록 깊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말씀에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사색의 숲으로 그들을 말씀이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술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님께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취한 마리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감동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삼 남매, 즉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집의 살림은 마르다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 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고 대접하느라 분주한 이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취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취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야 향유를 쏟아붓는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술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후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도박도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손가락을 자르며 맹세하고도 또 도박판에 간다고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내놓기 부끄러운 것에서 시작하여 당당한 취미라며 자랑하는 것까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취할수록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는 취할수록 맑아집니다. 취할수록 삶이 아름다워지고, 알이 꼭 들어칩니다. 취할수록 당당해지고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은혜에 취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여름은 유난합니다. 여름이 오면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단잠을 깨웠고, 새벽부터 눈을 비비며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철모르던 어린 시절, 꿈 많던 학생 시절,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루던 청년 시절에 주님께서 여름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취하곤 했습니다. 청년기를 지나 인생의 무게가 더해지는 중·장년기에도, 삶이 원숙해지는 노년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산상기도회>, <가족수련회>, 청년들의 <농촌 선교> 등 기쁨의 땀을 흘릴 때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기쁨에 취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뻐서 함께 취하실 축제가 다가옵니다. 영락 가족 모두가 함께 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만남**

기독교 교육은 어머니 품에서 시작됩니다

—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평생 영락교회를 섬기며 다음세대 기독교교육에 헌신해 온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강동·송파 교구, 은퇴권사)가 지난 6월 19일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만남은 그에 앞서 6월 6일 주 명예교수의 자택에서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김성수 편집위원과 송경희 권사가 주 교수를 만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구하자 주 교수는 “믿음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권면했다. 1970~80년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시스템을 설계하고 여성성도들의 교육에 힘썼던 주 교수가 영락의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귀한 말씀이 되었다.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난 주 교수는 장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와 남산신학교를 다닌, 한국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서울여대와 숭실대 교수를 거쳐 장신대에서 일생 후학을 길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일찍이 〈어머니반〉을 개설해 여성들이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희년을 맞아 『장로교 여성사』를 쓰는 등 교회 속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드러내는 데도 힘썼으며, 은퇴 후에는 탈북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사역을 펼쳤다.

“아들 다섯을 모두 폐결핵으로 앓은 할머니,
나를 업고 매일 새벽 모란봉에 올라가 기도하셨지요”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이한 책으로, 성경의 내용 속으로 더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피터슨 목사님은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성경이 어렵고 난해하여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까 깊게 생각하며 6년간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평양에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19보다 더 지독한 폐결핵이 유행했어요. 아들 다섯이 모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고통이 발생했는지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눈물로 기도드릴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캄캄할 때 할머니 등에 업혀 모란봉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여자 기독교 선생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드리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1920년대인데,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

의 사랑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평양 송실대학 강당에서 김활란 박사님의 강연을 들은 후 그분을 여자 기독교 선생의 롤모델로 삼아 기독교 교육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평생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실행해오셨습니다.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기독교 교육 철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어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문제입니다. 살인, 간음, 학교폭력 등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이상적 인간상의 구체적인 모델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 그분의 설교뿐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습과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와 생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닮고 싶고, 좇고 싶은 삶을 사는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어른들의 거짓말로 얼룩진 모습을 언론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를 젖 물리면서 눈을 맞추고 교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을 함께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신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기독교 교육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볼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가정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가정을 방문하여 보면 집마다 부엌에 지도를 붙여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물어보니, 그 지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곳을 표시한 후 요리하거나 정리할 때마다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부엌에 드나들며 그 이슈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회적 이슈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교회학교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에 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영어 단어 외우기를 더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며, 대기업에 입사하고, 공무원이 되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성경은 성장한 이후에나 공부하는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성경을 공부할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겨를없이 치열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영락교회 교육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말뿐이 아닌 자기 삶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선생님들이 예배



강원도 원주에 여성 선교사 은퇴관을 짓고 있는 주선에 교수와 김화자 목사, 김영자 선교사가 지난해 주 교수 자택에서 모여 환하게 웃고 있다(가운데부터 시계방향) | 사진제공 국민일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선생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등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며 선생님들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평생 교회에서 오가며 만날 때, 언제든 반갑고 존경하고 싶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백 세가 되십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남은 삶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하는 중, 작년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셨던 독신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관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동역자들의 나이 역시 80을 바라보는 할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선교사가 평생 선교하다 은퇴하시면 마음 놓고 지낼 곳이 없습니다. 어느덧 늙고 병들어, 형제에게 의탁하거나 찜질방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편히 지내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사 파송과 후원에 집중했지만, 은퇴 선교사와 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퇴관을 시작으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의 성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맹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권면합니다. 요즘은 교회 가는 것이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각자 본인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면서 외식하는 것이 교회에 가는 목적으로 변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진정한 신앙생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선애 명예교수는 국민일보에 연재한 〈역경의 열매〉에서 1948년 스물네 살에 월남해 처음 예배드린 곳이 영락교회였고, 그곳에서 생애 가장 특별한 축복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경직 목사님 곁에서 정신적, 영적으로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잊히지 않는 축복의 순간이다. (중략) 지금의 봉사관 자리에 있던 베다니 전도교회(현 영락교회)를 찾았다. 마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귀에 꽂히는 우렁찬 찬송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쏟아졌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영락교회에서 유년부 지도를 맡는 등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에 교회 학교를 이끌었고,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여전도회 회장과 명예교문으로 봉사하였다. **만남**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간구합니다

6월 15~19일까지 5일간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라는 주제로 2022년도 북한선교대회가 열렸다.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가 주관한 이 대회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는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이번 북한선교대회는 6월 1, 8, 15일 <북한동포사랑기도회>와 북한선교부 실행위원들의 <30일 릴레이 금식기도>, 영락의 모든 성도가 함께 한 <30일 기도카드> 등으로 알차고 의미있게 준비했다. ‘북·중 접경에서 바라본 북한’이라는 강연으로 김동완 동아대 연구교수가 진행한 영락포럼으로 최근 북한 선교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으며, 포럼 관련 사진전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감사와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유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



김무섭 안수집사
서초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선교대회 당일인 6월 19일 베다니광장에서 <30일 기도문> 전시와 <북한 장마당>을 재현했다.

30일 기도문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라는 주제로 만든 30일 기도카드 테마를 중심으로 전시했다. 첫 번째 테마 ‘예수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 ‘자유로’는 북한 사회의 억압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 세 번째 ‘하나로’는 한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원로목사님, 위임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베다니광장에서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복음통일 기도 패널에 붙여서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다짐했다.

북한 장마당

교육부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북한문화체험 및 자유인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1단계로 교육부서에서 복음통일을 주제로 하는 공모전(유치/유년부 그림그리기, 초등/소년부 사행시, 중등/고등부 편지쓰기)에 참여하여 복음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고, 2단계는 공모전에 참가한 모두에게 달란트(북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주어, 북한 장마당 행사에 사용하도록 했다. 북한 장마당에서 준비한 북한문화체험(통일 바람개비 만들



기, 북한놀이, 통일포토존, 복음통일 낚시)과 북한 음식체험(속도전 떡 만들기) 등 5개 코스에서 교육부 아동들이 북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유인들의 섬김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북한선교예배

찬양예배 시간에 장석교회 이용남 원로목사님께서 전하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 북한선교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는 민족복음화를 다짐했으며, 100명의 자유인 초청, 복음통일학교 수료식, 뉴코리아 국제학교 및 외부 자유인 대상의 장학생 증서수여식 등 다양하고 풍성한 선교대회를 진행했다. 찬양예배 후 자유인과 북한선교대회를 위해 수고한 관계자

를 위로하는 리셉션에서는 위임목사님의 인삿말과 강사 목사님의 기도에 이은 2부 행사로 진행한 자유인의 4중창과 칼트리오의 축하공연 “초소의 봄” 등을 보며 참석한 모든 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하루속히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석자가 둥글게 손을 잡고 ‘고향의 봄’을 합창하며 사랑의 ‘예수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로’ 우리 모두 함께하는 ‘하나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2022년도 북한선교대회를 마쳤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만남**

탈북 중 하나님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저는 1984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998년에 탈북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999년에 정착한 24년 차 탈북자유인입니다. 2001년 영락교회 자유인 성경공부반 출석을 시작으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부 등 신앙 선배에게 신앙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영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 목회자 가정의 귀한 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저는 현재 북한선교부에서 청년의 북한선교 기도 모임인 <하베로 기도회> 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탈북자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와 복음통일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의 삶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에서 남한의 청년들과 함

께 성경공부도 하고, 하기선교봉사와 해외선교봉사를 하며 작은 복음통일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여, 지금은 하베로기도회를 통해 남과 북의 젊은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직원들이 한곳에 어우러져 남북 주민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을 하며 직장 내 통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남녀가 7년 전에 가정을 이루어 통일의 열매를 맺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여 사랑하고 포용하며 남남북녀가 아니라 ‘북남남녀’ 통일을 완수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나 직장에서 남과 북의 다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이미 3차대전(?)을 치렀고, 앞으로 더 몇 차례 대전을 치를지 모르지만, 북남남녀의 부부 전선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피, 곧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에 다름과 갈등 중에도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언어와 문화가 같았더라도 잠깐의 분단이 초래한 다름조차도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격이 다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해성 성도
종로·성북교구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부 부총무

제가 이렇게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의 현장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년이 탈북과정 중 친척과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탈북민의 여정보다는 안전했으며, 15세의 나이에 탈북했기에 북한이나 탈북과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고, 사회적응도 성인 탈북민보다 나았습니다. 사투리 교정이나 문화적응도 빨랐고, 신체도 건강해져서 저를 탈북자유인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깨달아 평범했던 저의 삶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으로 인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살아온 삶의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자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여주셨고, 어린 나이에 겪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북한의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던 사람들 옆에서, 중국에서 복송되어 끌려가는 사람들 옆에서, 중국인에게 팔려서 감금당하고, 성을 착취당하는 탈북 여성들 옆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탈북민들 옆에서, 몽골의 국경과 동남아의 메콩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탈북민들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신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무신 곳에 이끄신 은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의 강압적인 독재정권에서 움츠리며 살다가 이 땅에 오기까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정착 후에도 건강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며 때로는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탈북민들 옆에서, 안타까워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대원이 구조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듯 저에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미약하나,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길 시도했고, 18년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실패도 많았지만, 영락교회 북한선교부의 중국 내 탈북민 선교, 국내 정착 탈북민 선교의 현장에서 저의 작은 소임을 다하다 보니, 지금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게나마 북한선교와 복음통일 현장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24~25)

제가 북한선교와 민족구원을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북한선교사역과 걸어온 20년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기에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만남**

관심과 베품도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제11기 복음통일학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목회자 및 성도들이 강의하던 것과 달리 자유인(북한이탈주민) 중에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 등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을 강사로 모셔서 북한선교사역자(정착도우미) 양성을 목표로 복음통일 관련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진행하고 있다.

현장학습으로 송악기도처 기도를 가장 먼저 진행했다. 북한 땅을 눈앞에 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몸에 전율이 감돌았다. 뼈꾸기 울음소리, 흰색 두루미의 날개 짓을 보며 저들은 자유롭게 남북한을 오고갈 텐데, 우리는 서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기도와 찬양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방법대로 그 날이 오리라 믿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

이어지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강의를 통해 자유



송악기도처를 다녀오며 도라산역에서

인에 대하여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자유인들의 트라우마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들의 상처는 상담, 복음전파, 관심과 베품, 고급음식 대접, 가정초대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용당함 등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장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 등을 배우게 되어 무척 유익했다. 복음 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강의들이 확대되기 바란다.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것이 통일에 대한 관심집중 및 통일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적으로는 복음통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많은 정착도우미가 양성되어 복음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만남**



이용택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북한선교부 복음통일학교 팀장

기나긴 여정을 성경 읽고 버텼습니다

구OO _ 뉴코리아국제학교, 청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입니다. 북한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일만 해야 하고, 아무리 일해도 노동에 대한 보수는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북한에서 살아온 저는 중국에서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갈 때 만난 브로커가 중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하며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함께 있었던 친구도 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와 친구는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2박 3일 정도 함께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 가서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가기 전에 성경 읽기 일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힘이 된다는 말씀에 무슨 책임지 모른 채 3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니,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한 구절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난 후, 2015년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영락교회의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영어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지면서 작년에 영락교회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뉴코리아국제학교 수업 장면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린 청년부 새벽행진

맹렬하게 위세를 떨치던 코로나19의 기세가 한 풀 꺾이면서 이곳저곳에서 샘솟듯 기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 예배당에 꼭 채워 앉을 수 있는 일도, 몇 년 만에 교회 식당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는 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다 시금 깨닫는 요즘입니다.

많고 많은 감사함 중에서도 긴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시작된 청년부 새벽기도회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간직하며 글을 씁니다.

청년부에서는 지난 5월 9~19일까지 10일 동안 <새벽행진(빌립보서 3:14) Light On> 주제로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부 최재선 목사님과 함께 이레 회장단(회장 박종훈), 청년부 중앙멘토단(홍영남 장로 외), 각 부서 대표 멘토단, 교역자 및 80~95명의 청년이 매일 새벽을 깨우며 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새벽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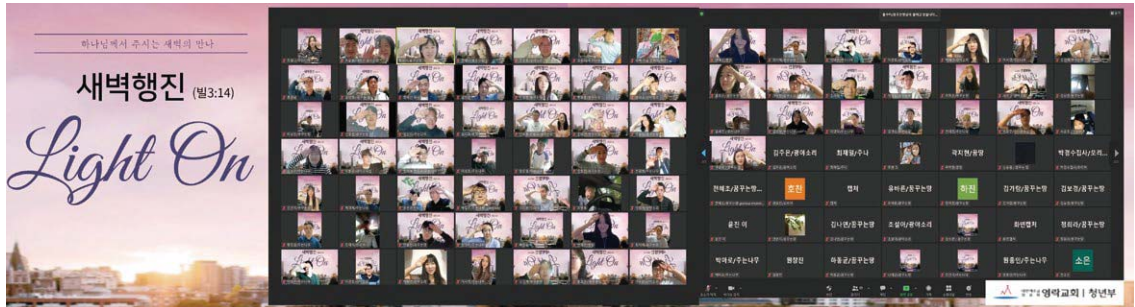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은 설렘으로 잠을 깨웠던 새벽기도를 시작한 첫날입니다. 습관의 관성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지난 2년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새벽기도를 위해 새벽잠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참여하는 새벽기도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는 간절함이 훨씬 크고 강했기에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눈이 뜨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고자 몸부림치며 결단했던 마음을 격려라도 하듯, 최재선 목사님께서 전한 ‘영적 변화를 위한 순종’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위로와 도전을 주었고, 인터넷 화면 너머로 보이는 청년들과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는 일 자체로도 마음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많은 청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새벽을 깨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시죠?’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예배 후 첫 기도 시간에는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감격했던 것은 지난 세월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중 응답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



이강호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던 은혜가 떠오르며, 다시금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실로 오랜만에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 뒤로는 훨씬 수월하게 그러나 더욱 간절하게 새벽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늦은 밤에 잠이 들어 피곤한 모습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기쁘시게 여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어제의 수고들을 기억하기 전에, 또 오늘 목전에 있는 바쁜 일들을 계획하고 고민하기 전에 하루 중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시간은 하루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적은 시간이었지만, 과부의 두 랍돈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행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루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새벽행진이 끝났지만, 청년 인생의 새벽행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도 새벽행진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첫 시간을 내

어 드립니다. 바쁜 회사 일정과 세상의 각종 뉴스가 내 눈과 귀에 닿기 전에, 잠자리에서 또는 출근 길에서 하루를 대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새벽을 여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이 팽배한 시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침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는 여러분의 첫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 모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나긴 영적 무기력을 깨우고 행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길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안녕**



우린 쉬지 않으니

- Run On,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

“안녕하세요. 청년부가 3년 만에 하기선교를 갑니다. 많이 기도해주세요!” 충남으로 달려갈 청년들,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선교관 앞을 수놓았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당, 기념관, 베다니홀, 베다니광장 등 교회 곳곳에서 ‘Run On,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를 주제로 <2022 영락청년 선교비전>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중동, 동남아, 유럽을 비롯한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담은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언젠가 재개될 해외선교의 비전을 다지는 한편, 안타까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 대신 ‘○○’ 등의 기호 또는 가명을 표기한 것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에 가져다준 자유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청년부의 선교 발자취가 담긴 대한민국 지도, 2019년 하기선교 사진 자료 등을 볼 때는 팀원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그렸던 노아의 방주 벽화,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 하나씩 손에 쥐여주고 가셨던 분들의



나광호 성도
청년부 모리아 지기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에 많은 성도들이 호응했다

미소가 떠올라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성극(십자가 행진) 등을 통한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셨던 분들의 얼굴도 생각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미래도 그려보았습니다.

둘째 날, 청년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회와 두 번째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믿음, 삶의 힘 ‘꿈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전하는 서정오 동송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적 야성이 약해진 것 아닌가 자문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과 달리 생명의 위협은 고사하고, 직장에서 보장하는 연차 휴가가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망설였던 나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등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 같았다면, 저는 국내 및 인도, 싱가포르, 미국, 터키,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을 빌미로 당분간 선교를 쉬고 인생을 챙기자는 유혹에 넘어져 버린 종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성경부서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성도 여러분께 안내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발걸음에서, 어느덧 선교관을 넘어 본당 앞까지 진격하는 동지들이 든든했고, 선교사님께 보낼 편지를 고사리손으로 쓰는 아이들을 보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펼쳐질 선교에 대한 기대감도 차올랐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는 이룬 일일 카페에서는 이번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관심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더 많은

분에게 덕담을 듣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달려간 예배 자리에서는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재물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문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 파도에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전사.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청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빛 되어 한 영혼 살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할 지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청년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남**

”

취업에 실패했다고요? 당신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 하나님의 손길과 준비, 은혜를 구하자

은퇴하신 선배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큰딸이 삼성 신입 공채에 계속 불합격하는데,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셨다. 질문을 듣고 바로 답을 드렸다.

“파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선배님이 연락하셨던 당시의 대기업 신입 채용 경쟁률은 이공계가 수십 대 일, 비이공계는 50~70 대 1 정도였다.

이 세상은 인과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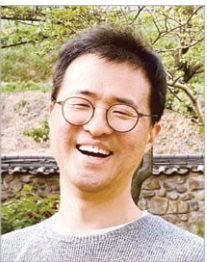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며,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그럼 보상받지 못한 사람은 게을렀던 탓일까? 이렇게 ‘원인이 이러하면 결과는 꼭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인과론적 관점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채용에는 비인과(非因果), 즉 우연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작년에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우연에서 마침으로”라는 말씀에서, 룯의 일생을 통해 세상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 뜻, 준비, 은혜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초경쟁 시대, 취업시장에 개입되는 우연성

취업 실패를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내가 삼성전자 신입 공채 면접을 할 때, 하루 평균 25명 정도를 면접했다. 면접을 다 끝내고 나면 녹초가 된다. 꼭 합격시키고 싶은 기억이 나는 사람은 2~3명 정도였으며, 뽑지 말아야겠다 싶은 사람도 2~3명 정도 된다. 그런데 나머지 17명은 좀 아리송하다. 이들은 실력이 다들 비슷해서 우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중 누군가는 합격을 통보받고, 누군가는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 이들의 당락을 가른 것은 본인들의 실력일까? 그날 어떤 면접위원이 낯익게 질문했을 수도 있고, 또 지원자의 전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한 면접위원이었다면 지원자의 전문성 자체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면접 시 타이밍도 문제다. 오후 2시 30분쯤 되어 면접위원들이 슬슬 졸리기 시작하면, 지원자가 신나는 프로젝트 성공담을 얘기해도 면접위원이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초경쟁 사회에서는 전형절차 자체도 변별력이 매우 떨어진다. 만약 여러분이 가상의 자격시험, 예를 들어 메타버스 기능사 2급에 도전한다고 가정해보자. 시험은 20문항이고,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이다. 100점 만점에 컷라인이 60점일 경우,



주재성 이사
쿠팡 인사팀



0~55점까지의 취득자는 불합격하고, 60~100점까지의 취득자는 합격할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이 자격증이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고, 지원자들이 왕창 몰렸다. 심한 상향평준화 현상이 생기면서 커트라인이 92점이 되었다고 치자. 그럼 두 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이다. 이때 이 시험은 실력을 가르는 것일까? 아니면 운을 가르는 것일까? 1개 틀리느냐, 2개 틀리느냐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이 전형에는 매우 우발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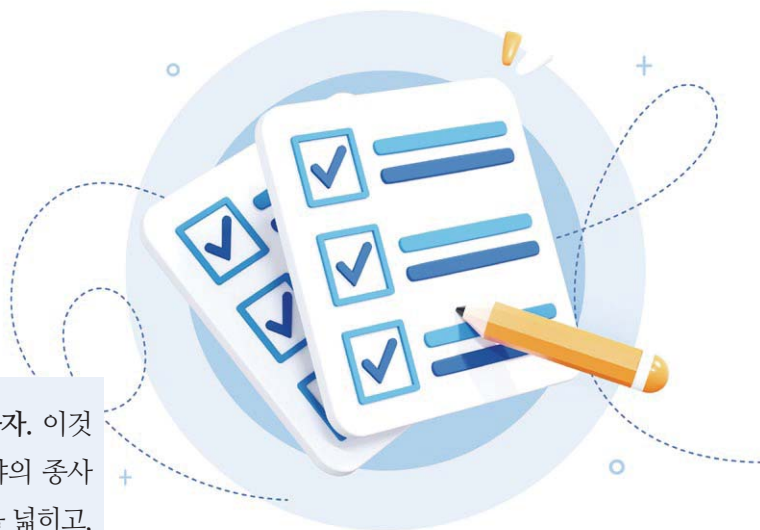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신입 채용은 커트라인 60점 모델이 아니라, 커트라인 92점 모델에 더 가깝다. 이 구조는 취준생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기대에 비해 좋은 직무의 수요가 너무도 적다. 즉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업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한

심하다고 생각하고 움츠러들게 된다. 반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사실 그저 운이 좀 더 좋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긴다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

실제적 조언

우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업 관문을 넘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 ①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반드시 2/4 분기에 취업하겠다!)
- ② 반드시 어느 장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반드시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근하겠다!)
- ③ 반드시 어느 산업, 어느 직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게임업체로 가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④ 우연한 만남, 우연한 충고에 유의하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고, 현직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자신이 계획하여 각본을 쓰고, 자신이 기대한 때와 장소에서 스스로 주연을 맡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개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짜인 세상'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목표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우연도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경직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경험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요셉이 경험한 섭리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양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시킨다. 요셉은 들판에서 형들을 찾으며 방황한다. 그때 어떤 모르는 사람과 마주친다.

어떤 사람이 그(요셉)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창세기 37:15)

요셉은 들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 형들을 찾게 된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상인들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인생역정이 전개된다. 훗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과 재회하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нк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창세기 45:7~8)

요셉은 자신의 인생역정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것을 성찰해 냈다. 요셉의 필연적 일생에는 '들에서 만난 우연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었다. 우연과 필연이 만날 수 있다. 요셉이 경험한 필연 속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는 지점이요, 신앙의 신비이다. 그 건 취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만남**

성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상담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내담자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상담가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단 중 공감(共感)과 동감(同感)을 구분할 때, 내담자를 대하는 회복과 치유의 여정에 상담자만의 지표(指標)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석의 상대성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상과 현상을 자신의 관점(frame)으로 해석합니다.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담 방법을 기준으로 상담을 두 부류(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로 나눕니다. 어느 것이 우월한 상담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과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비지시적 상담이 우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지시적 상담 방법 중 하나는 인간중심적 상담인 칼 로저스(Carl Ransom Rogers)가 주창한 상담이론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경청하며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러한 비지시적 상담을 내용과 지표가 없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 없이 단순히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더라도 상담자는 본인과 내담자의 관계와 위치 그리고 문제와 해결의 설정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공부와 삶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명한 상담가들을 연구해보면 자기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가치와 저마다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상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세 가지 지표

먼저 『만남』 지면에 실린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을 성경에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세상을 선지식으로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성경을 지표로 상담하는 것을 ‘성경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언뜻 성경을 가지고 상담한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담이 성경적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모든 과정이 성경 내용을 최우선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삶의 경험을 근간으로 가지는 상담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큼 충분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신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양적 사례와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 해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경청과 지지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에 시기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담자는 심리학에 관련한 지식을 상담에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확장되고 심도 있는 상담 기술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심리학적 이론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 기술에 관해 깊은 이해를 갖추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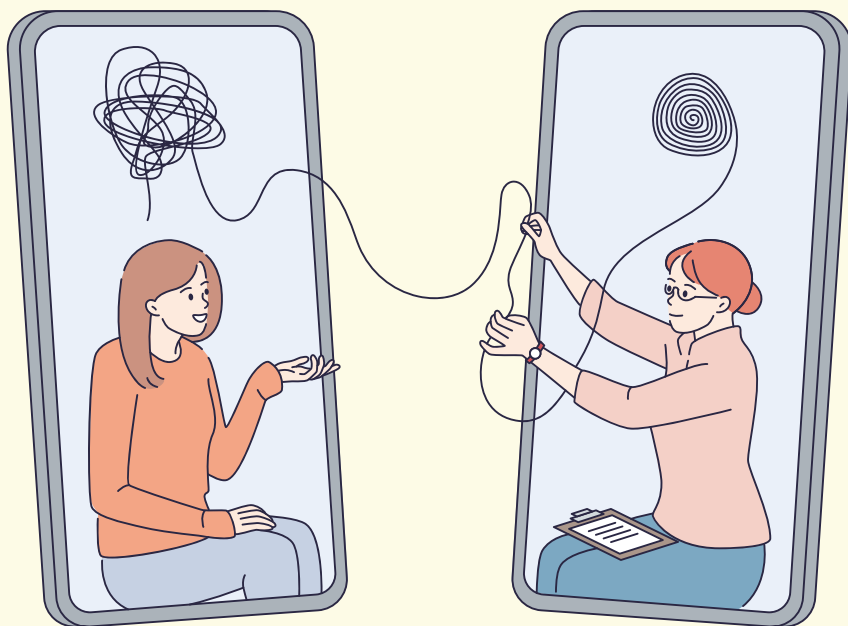
심리학은 기원전(B.C 1550년 파피루스에서 우울증 언급)에서 그 기원을 찾지만 보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학문적 모양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역사가 짧아서 아직은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지만, 학문성과 과학을 활용한 지속적 접근은,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무지와 편견으로 외면하고 알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관이 검증되지 않은 맹신(盲信)적 심리학의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용 심리학을 근간으로 만든 성격유형 검사)를 예로 들자면 한 사람의 독특한 존재를 16가지 유형에 담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이해하며 눈높이에 맞춰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적 가치가 심리학에 있고, 바른 세계관과 성숙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상담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익함이 심리학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상담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성경과 심리학에 근거한 해석과 적용의 의미가 아니라, 상담에서 만나는 내담자의 존재와 삶과 환경을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조사, 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5)

석, 연구하며 상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의사 수련을 받던 교회 형님이 한 가지를 조언해주었습니다. 보통 수련의 때에 돌봐야 하는 환자가 수백 명이라 많은 일만 해도 너무 바쁘다 보니, 자신은 환자와 질병에 관련하여 의사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는 많은 환자 중 한 명을 선정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상태를 확인할 뿐 아니라 틈틈이 그 환자의 병실에서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환자의 병세 회복과 치유, 악화,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되고, 환자와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의사로서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며,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목양하여 목회의 기본을 다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표를 넘어 성장하기

저는 상담에 있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성경, 심리학, 현상 연구라는 지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해, 인간에 대한 통찰 그리고 명확한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두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상담자의 실력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느낍니다. 이는 상담가로서의 전문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상담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루어 집니다. 사랑하는 상담자 여러분, 우리는 얕은 지식과 인습적 신앙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에베소서 4:13)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탄식하는 사람들이 기대어 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상담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명랑상담! **만남**

똑똑! “여기가 국제예배인가요?”

– 올 상반기 5개국 새가족 교육 마쳐

국제예배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국제예배에 나오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국제예배를 찾기 때문인데, 가령 국제결혼을 한 커플, 대사관에서 일하는 분의 가정,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비즈니스 하는 분, 여행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고대하던 포스트 코로나의 여름을 지나며 기지개를 켜고 활력을 되찾고 있는 국제예배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우선 체류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체류 기간이 1~3개월 정도로 짧은 분들에게는 최상의 예배 및 친교 환경을 제공하고 영락교회를 언제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환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은 일정 기간 출석이 확인되면



김윤기 Justin 목사
국제예배팀

영어로 진행되는 새가족 훈련을 통해 교인으로 등록하고, 궁극적으로는 영락교회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교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부서로서의 국제예배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



새가족 교육 수료생 첫째줄 왼쪽부터 Vieri Hizkia Manuel (인도네시아), Chisala Zakeyo Chola(잠비아), Emmanuel Mwape(잠비아), 백금란(대한민국), Mantik Keren Esther Kristina(인도네시아), Bella Kim(대한민국), Jonathan Samuel Lumentut(인도네시아). 그외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신 성도 등 10명이 수료했다.

며, 교회 내 여러 제직 부서의 도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상반기 한 달에 걸쳐 실시한 새가족 교육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섯 개의 국적이 한 테이블에 모여 실시한 본 교육은 짝이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의 일환이자 참여자들의 다양한 신앙 여정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이런 분들에게 영락교회가 제2의 신앙적 고향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라고 부르며, 인간의 국제간 이동이 여러 사회의 안면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주민을 맞이함으로써 찾아오는 변화는 단지 국제적인 현상뿐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구

속사적/선교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방향하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라면, 타국에서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영락교회의 문턱은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만남**

● 새가족교육을 마치며

Simeon Geldenhuys & 백금란 부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영락교회 간판을 보게 됐어요.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영어예배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예배에서 진행한 새가족 교육은 이미 신앙이 있는 저희에게 편하고 유익한 과정이었어요. 물론 교회가 완전 처음인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Mantik Keren Esther Kristina 자매

국제예배에 이미 출석 중인 조나단 형제의 소개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고향에 있는 교회도 장로교 교단의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도 영락교회를 추천해주셨던 터라 믿고 나올 수 있었어요.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다른 멤버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Francis Kim 형제

일전에 여러 영어예배가 연합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영락교회 국제예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이번에 국제예배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는데 특별히 다른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좋았지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요, 조만간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뵙고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닌 영락 영아부에 제 두 딸이...

- 교회서 주일을 보낸 기억들로 신앙 전수

마침내 드리는 영아부 현장예배

5월부터 두 딸이 영아부 현장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한 후 자녀들이 첫 번째로 예배당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교회학교가 다시 문을 활짝 열고, 마침내 저희 가족도 모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내 주는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 두 딸이 영아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많은 어린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사진으로나마 만나 뵙게 됩니다. 저희보다 먼저 용기를 내셔서 예배 현장에 찾아오신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두 딸을 소개합니다

첫째 세 살 서윤이는 예배가 시작되면 엄마 품을 뱉고 떠나서 예배실 맨 앞으로 와다다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줄곧 울동선생님 앞에서 울동을 따

라하지요. 작은 화면 속에서만 만나던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이 눈앞에 계시고, 손잡고 안아볼 수도 있으니 정말 신이 날 것입니다.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울동하고 찬양했던 영상을 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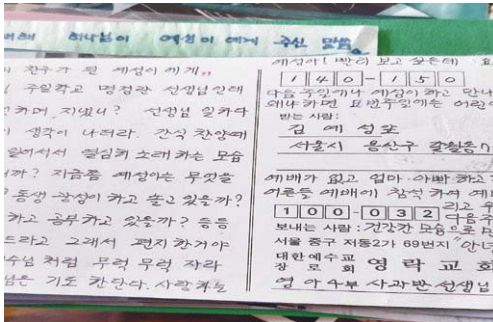
김예성 전도사
동대문·중랑교구
목회행정

“작은 손을 펼쳐서 짹짹, 두 발을 모아서 쿵쿵 쿵, 어깨를 으쓱 퐁퐁퐁, 온 몸으로 찬양해요!”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귀여운 울동을 선보입니다.

둘째 라운이는 5개월차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들리는 다양한 소리, 교회 가는 길에 만나는 새로운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영아2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오전 11시 즈음의 베다니광장에는 따스한 햇살과 파란 하늘, 초여름의 푸른 나무와 풀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요. 광장 벤치에 도란도란 들리는 성도님들의 담소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시는 환대도 라운이에게는 무척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들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저 또한 이곳 영락교회에서 영아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덕의 오래된 앨범에는 교회를 천방지축으로 누비던 세 살 시절의 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선명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항상 친절하시던 성도님들과 특별히 영아부 선생님들은 행복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용감하게도 한경직 목사님의 양복 가슴에 꽃을 꽂아드리던 세 살 아기는 이제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교회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필자의 영아부 담임선생님이었던 명정란 집사님께서
써 주셨던 편지



아기였던 필자와 가족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했다(오른쪽 두 번째 아기가 필자)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차곡차곡

오늘날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 한다는 것이 실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영상매체와 게임의 홍수 때문일까요? 높아져만 가는 입시와 취업의 장벽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변함없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탁월함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전수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이 존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주일을 보냈던 작고 행복한 추억들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엄마가 내 작은 손을 꼭 잡고 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억, 아빠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박 토박 읽어주었던 기억, 교회 온 구석구석을 누비며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기억.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에 가면 행복하구나’ 조그맣지만 의미 있는 기억들을 교회의 뜰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억이 등대가 되어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설혹 신앙의 여정에 파도치는 날을 겪게 되더라도, 어릴 적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의 기억이, 이들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에 교회 뜰에서 만났던 작은 꽃 한 송이, 산들거리는 바람과 파란 하늘 아래 십자가 종탑, 그 아름다운 사소한 기억이,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헤맬 때 하나님을 찾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영락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시간은 저의 어린 딸들에게 마치 사진의 한 장면처럼 순간의 기억들로 남겠지만, 평생의 신앙을 지탱하는 뿌리가 두 딸의 심령에 굳건히 형성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교회마당에서 4월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기반으로 성적 취향, 정체성, 동성애 옹호 등으로 배움의 도중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첫째, 학생에게 부여한 과도한 권리로 인해, 학생 통제의 어려움 및 교실 붕괴가 발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학생들이 인식하여, 교사에게 반항, 폭언, 폭행 등을 거리끼지 않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들에 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가 선의로 수행하는 학생 지도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학생 지도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생활지도와 교실 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계환 장로
고양·파주교구
기획위원회 위원

둘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일부 청소년 단체는 합

의 하의 성관계는 권리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는 주장을 담은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캠페인도 펼쳐 사회적 충격을 줬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신 및 문란한 성적 행위 등에 관한 교육 자체를 교사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십 대의 임신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어린 학생들의 성관계조차도 무방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어린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성 윤리 대책은커녕, 성 윤리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제약까지 제거하여 파생할 결과로서 미혼모, 원조교제 등이 증가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셋째,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공교육 차원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 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모두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가진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자의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된다. 동성애자 학생이 동성 친구를 유혹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 학

교 내의 동성애를 보장하는 반면에, 동성애를 비 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거부하는 학생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아서, 지속해서 동성애를 강요받고 고통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교육하면, 아직 확고한 성 정체성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오판하여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청소년 시기는 정신적으로 동성 간의 우정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나이이기에, 만에 하나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청소년이 자칫 동성애자의 굴레에 들어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여 교육한 결과,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넷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의 교권 침해가 급증할 것이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총 26,411건의 교권 침해 건수 중 대부분이 학생에 의해 발생했는데,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16,485건(62%), 수업 진행 방해가 5,583건(21%), 폭행 436건(1.7%) 등이며,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75건(1.4%)에 달했다.

다섯째, 학습 분위기 저하는 결국 학생의 학력 저하로 연결된다.

교실이 통제되지 않으면 학습 분위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엎드려서 자는 학생도 깨우지 못한다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 지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학력은 더욱 떨어진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집회의 자유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절제력, 판단력 등을 함양해야 함에도 인권이라는 구실로 학생들을 부추기고 절제력 등을 교육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쉽게 수용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칫하면 학교를 선동 장소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심어줄 수 있다.

일곱째,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이단 종교에 대한 분별력 상실을 가져온다.

사립학교는 법인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니며,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종교사학은 건학 목적에 따라 종교를 교육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사학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를 교육할 권리를 부정한다.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 권리가 충돌할 때,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종교사학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이다. 또 학교의 종교교육 시간에 이단 종교를 비판하는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초등, 중등 교육법 등 현행 법으로 학생의 인권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 **만날**

내적성숙을 위한 영성수련...거룩한 독서 배워

영락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을 맞이하는 새가족부(부장 김명옥 장로)는 접수팀, 교육팀, 정착팀, 환영팀,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 5월 28일 2년여 만에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새가족부 중앙회 팀별 반장, 담당 권사, 총무 등 25명이 ‘내적성숙을 위한 영성수련’을 주제로 수련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의 내면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바로 선 상태로 새가족을 맞이할 때 새가족들도 우리 모습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락교회에 정착하여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신대군 목사의 영성수련원 소개를 시작으로 1부 경건회에서 새가족부 김형찬 지도목사가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는 우리”(레위기 25:4~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나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중, 나그네, 가축까지 모두 살아나며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 우

리의 마음을 두드렸으며,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경건회 후 쉬는 시간에는 영락수련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을 했다. 영락여자신학교 터 위에 세워진 영락수련원은 눈물과 기도의 재단이다.



김동환 집사
동대문·중앙교구
새가족부 서기

현재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감격에 더해 무임승차로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받는 듯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이어진 말씀묵상은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였다. 권혁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말씀묵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독서와 기도의 전 과정’인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바나)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말씀 읽기의 다섯 단계는

① 렉시오(Lectio, 읽음)로 시작한다.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우리의 내면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리게 된다. 다른 걱정과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현존을 내 비움의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② 메디타시오(Meditatio, 묵상). 나의 관심을 끄는 단어나 구절을 주목하여 천천히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읽어 내면으로 보내 소화함으로써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한다.

③ 오라시오(Oratio, 기도). 묵상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듣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듣기가 반복된다.

④ 컨템플라시오(Contemplatio, 바라봄). 찾아오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단계로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체험을 말한다. 바라봄의 경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의 의지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이 3년 만에 가진 수련회

게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⑤ 고요히 감사기도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위와 같은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말씀묵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자세하게 들은 뒤 시편 16편 1~11절(새번역)로 말씀묵상을 실행해 보았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말씀묵상은 일상과 교회 봉사로 분주했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시간이었다. 묵상을 통해 각자 마음에 닿는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짧게나마 나누었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기쁨이 넘쳐났다. 영락수련원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 식사와 새가족부 권사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진미 성찬은 말 그대로 영과 육을 살찌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스스로 준비하고 솔선수범하는 각자의 모습에서 천국 모형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

다. 팀별 모임 순서에는 김형찬 목사와 장민희 전도사께서 주신 카드 모형 중에 각자 3개의 카드를 뽑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한경직목사 우거처를 방문했다. 땅 한 평, 통장 하나 없는 청빈의 삶을 사신 목사님은 풍요와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거룩한 메시지로 남으셨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시금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로새기는 시간이었다. 이어, 팔복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팔복재 입구에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과 기도 제목이 있다. “영락교회는 진리의 등대, 생명의 원천으로서 영원히 민족복음화의 중심,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사회정화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영락교회가 나아갈 길, 영락교회 성도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시간마다 부어주셨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영락수련원을 나셨다. **만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진하여 가다

모세, 모세, 모세~ 이겨라!!
다~윗~ 와~~~ 다윗이 이겼다~

비록 가려졌으나 입에서는 함성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참을 수 없는 파안대소가 얼굴 근육들을 요동치게 하고 있었다. 방역 정책에 의해 씌워진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렸으나 결코 그것들을 숨길 수는 없었다.



박일수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제2남선교회 부회장

눈과 눈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몸과 몸을 부딪고, 발바닥은 운동장을 박차며 뛰어오르고, 근육들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시원한 외침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담 너머까지 날

아갔고, 시선은 끝을 알 수 없는 파란 하늘에 연발 탄처럼 수없이 던져지고 있었다.

3년 만의 체육대회

지난 5월 21일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난 3년간의 고요함을 깨고 오랜만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바로 선교부가 주최하고 1~4남선교회가 주관한 영락교회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가 열린 것이다.

3년 만이어서 그랬을까? 예상을 깨고 5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후원 상품들도 넘쳐났다. 준비한 도시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남선교회와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준비했으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치러져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다.



체육대회 준비: 행진하여 가는 교회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하며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사실 몇몇 분께서 코로나 19 상황인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염려해주셨다. 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2남선교회 목흥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하나 걱정이었다.

그런데도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금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특히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길 간절히 바라는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교회가 일어나 행진하여 가는 발걸음에 작은 신호탄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불과 1개월을 남겨두고 대회를 결정했다. 전태성 수석부회장이 행사를 위해 만사를 제치고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체육대회 이모저모: 일어나 행진하다

식전행사로 진행한 올드보이즈의 하모니카 연

주의 진동이 경쾌하게 하늘을 가르며 행진해 나아갔다. 경진회에서 남선교회 회장단의 특송에 이어 김운성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6~8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완주’ 말씀을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완주를 위해 행진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하며 축복해 주었다.

이어 1남선교회 회장 안태운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체육대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모세팀(홀수 지회)과 다윗팀(짝수 지회) 두 팀으로 나누어 대항했다. 첫 번째 경기는 ‘박 터뜨리기’였는데 ‘영락교회’, ‘행진하여 가라’는 현수막이 터져 나왔다. 이 현수막은 양 팀의 상징 깃발로 사용되었다. 이어 한마음 릴레이 점프 공 나르기, 줄다리기, 뒤집기, 징검다리 건너기 등으로 양 팀은 열띤 대항으로 함성과 웃음을 파란 운동장과 하늘에 거침없이 쏟아냈다.

점심시간에는 난타와 올드보이즈의 공연으로 특별한 볼거리가 풍성했다. 한편 탁구장에서는 번외 경기로 개인전이 자율적으로 열렸다. 오후에는 보디가드 피구, 족구가 격렬하게 펼쳐졌고, 어린이

모세팀(왼쪽)과 다윗팀의 줄다리기. 응원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한마음 릴레이 점프 공 나르기(왼쪽)와 박 터뜨리기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대상인 낚낚 과자먹기, 지네발 릴레이 등이 치러졌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경기를 진행하여 어릴 적 향수를 일으켰다.

다양한 경기를 통해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다. 매 경기 선수들이 나서서 출전하여 힘을 겨루는 모습에서 천국을 향해 나서는 출병,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 선교지를 향해 거침없이 행진하겠다는 각오와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체육대회 마무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완주를 하자!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치른 마지막 계주 경기는 잊치락뒤치락하는 우리의 인생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았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두 팀의 종합성적도 잊치락뒤치락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렇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렇다. 경건회에서 주신 메시지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우는 것 같았다.

폐회 시간이 되어 성적을 결산하니 다윗팀이 참가점수 2,080점, 게임점수 2,000점으로 모세팀을 제치고 통합점수 4,08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체육대회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꾼다

아직 펜데믹 상황이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신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였고 예배했고 성도의 교제를 진하게 나누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는 깊이 느꼈다.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이번 체육대회를 발판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길 소망해본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만남**

일찍 온 여름철, 건강관리 이렇게 합시다!

무더위가 두려운 여름이 왔다. 현대인에게 여름은 체온유지가 쉽지 않은 계절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내와 자동차, 지하철, 버스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냉방시설이 풀가동 되고 있으니 말이다. 출근이나 외출할 때도 반소매를 입을지 긴소매를 입을지 고민하는 요즘이다. 기상청이 2월에 발표한 2022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라고 한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여름에는 건강관리가 무척 중요한 계절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이 상하기 쉽고, 고온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을 앓기 쉽다. 여름철 질병 종류와 각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여름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 대비이다. 폭염에는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많다.

일사병은 고온에 노출된 신체 온도가 37~40℃



최현희 집사
성동·광진교구
의료선교부

까지 오르고, 어지럼증, 정신 혼란, 구역증 등이 나타나며 땀이 많이 나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질 수 있다. 일사병 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낮춘 다음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공급하고 1시간 이상 충분히 쉬게 한다.

일사병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체온이 40℃ 이상에 이르는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작, 의식소실, 경련 등이 생긴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며, 시원한 물을 환자의 몸에 적신 후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열을 식히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절대 물을 먹이지 않는다.

온열질환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될 수 있으면 장시간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피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헐렁하고 밝은 옷을 입고, 양산이나 모자를 쓴다. 또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은 실내 온도를 높이므로 자제한다. 폭염에는 아이 혼자 절대 자동차 안에 두지 않는다. 창문을 열어둔다 해도 띄약별 아래에서는 차의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반대로 여름철 실내의 과도한 냉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내/외 온도차가 섭씨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여름, 특히 직장인들은 온종일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열기와 실내의 냉기 차이를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 감기, 몸살, 두통, 피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 냉방병의 예방은 실내외 온도 차이를 5~6℃ 이내로 하고 되도록 하루에 3번씩 환기하여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및 충분한 수면, 그리고 차가운 공기 차단을 돕는 긴 소매 카디건을 실내에 항상 갖추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도 여름에 걸리기 쉬운 질환이다. 덥고 습한 데다 땀까지 많이 나면서 눈병에 노출되기 쉽다.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7~9월에 증가한다. 눈병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되도록 눈을 비비거나 자주 만지지 않는다. 눈병이 생길 경우, 충혈, 눈물흘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눈곱이 많이 끼고 따갑다면 바로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져, 음식으로 인한 질환도 생기기 쉬우며 감염병 위험도 증가한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패류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수 있으며 도마, 행주, 칼, 조리하는 사람의 손 등을 통해 감염성 세균이 증식해 다른 식품까지 오염시키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소독하고,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니 보관기간이 지나면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또, 여름철에

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시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고,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여름철에 피부를 노출한 채 풀숲에 들어가면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모기 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긴소매 옷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린다.

폭염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다시 강조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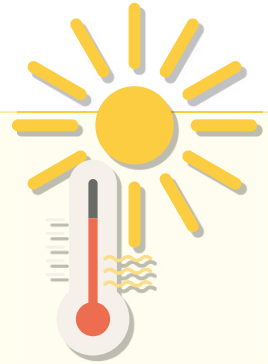
- 노인은 땀샘 감소로 인해 땀 배출이 적으며, 체온 조절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한다.

-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아서 열 배출이 어려우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높은 기온으로 인

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상담 후 섭취)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카페인이나 다량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 등은 체온 상승,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한다.
- 넉넉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한다(양산, 챙 넓은 모자, 쿨토시 등).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 5시)에는 휴식을 취한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한다)

④ 매일 기온, 폭염 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만남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할렐루야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송재봉 안수집사, 총무 박선미 권사



창단 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기념사진을 찍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이다 (시편 149:1)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창립한 <할렐루야 찬양대>는 수요일부 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102명 대원이 2019년 3월 6일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중 수요일부 기도회(오전 10시 30분)를 담당해야 하기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2명의 많은 대원이 모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00~10:00와

11:40~12:30(예배 후) 두 차례의 연습으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초대 지휘자 안정현 집사가 2년 5개월 동안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지휘로 찬양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2022년 1월 12일(수)부터 2대 지휘자 노원일 집사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0여 년 수요일부 기도회의 반주자로 섬기던 박미라 집사는 <할렐루야찬양대> 창립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신앙고백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교제를 나누고자 출발했던 찬양대는 온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창립 1년여 만에 합창을 멈추고 독창과 중창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든 대원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2년여 시간을 보내고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수요일 1부 기도회에는 우선순위를 찬양대에 두고 한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는 <할렐루야찬양대>는 노원일 집사의 열정적인 지휘와 사랑으로 한 공동체임을 다시 새기며 함께 손잡고 다시 행진합니다.

영락교회 창립 77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영락교회 창립 77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11월 27일 주일 찬양 예배(오후 5시) 시베다니홀에서 드리는 창립기념음악회를 우리 찬양대가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아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가득하기에 할렐루야찬양대에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를 영락의 온 성도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대원이 음악회를 위해 매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 담당하는 음악회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모든 대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

고 있으며, 1부는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대관식 미사(Coronation Mass)를 4명의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할 예정이고, 2부는 매주 수요일 1부 기도회에서 마음을 다해 올려드렸던, 예배 찬양 중 은혜로운 곡들을 선곡하여 찬양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총 18개 미사곡 중 가장 유명하고 많이 연주되는 대관식 미사는 특별한 예배와 행사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서 창립 77주년 기념 음악회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미사통상문을 바탕으로 총 6곡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독일과 프랑스 등을 여행한 이후에 작곡하여 기존의 곡들보다 규모가 크고 더욱 힘이 있으며 전통적인 교회 양식 선율의 곡입니다.

모든 대원이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음악회에 영락의 모든 성도가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은 깊게 감동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시편 48:1)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남**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다. 향후 메타버스 기술은 인터넷처럼 널리 쓰일 거라고 한다. 교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같다. 하지만 메타버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메타버스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 세계 많은 기업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다 제각각이다. 누구는 비디오 게임으로, 누구는 온라인 부동산으로, 누구는 온라인 상점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중에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니 일반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강명구 안수집사
강남교구
중등부 부감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닐 스티븐슨의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버스(Verse)의 합성어이다. 결국 가공의 세계로 번역할 수 있다. 나를 투영하는 아바타가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다. 예를 들어, 인기 연예인이 게임 속 공간에

서 콘서트를 연다. 게임에 참여하면 나를 표현하는 등장인물(아바타)이 보인다. 이 아바타를 조작하여 콘서트 공간에 가면 다른 수많은 아바타가 모여 있다. 각자 물리적 거리가 먼 여러 참여자의 아바타들이다. 연예인이 공연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공연장에 참여한 듯한 경험을 누린다. 아바타들은 개개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아바타와 대화할 수도 있다. 또 내가 전체 아바타들에게 연설을 할 수도 있다. 화상 회의를 하는 줌과 같은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줌은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회의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참가하지만,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다른 아바타 옆에 직접 다가서서 대화하면서 화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형식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만남은 줌과 같은 화상 회의보다 한층 현실과 유사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SNS)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이 이를 대변한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통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이후 머리에 쓰면 컴퓨터보다 몰입감 있게 가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머리 착용이 불편하며, 아직 화질이 낮아 대중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다. 현재는 다소 조잡한 형태의 아바타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옛날 게임 기 인물들과 유사하다.

메타버스 전망

로블록스는 페이스북보다 먼저 메타버스 사업으로 유명해진 회사다. 2004년 설립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가입하여 미국 초등학교 놀이터라고도 불린다. 기본적으로 게임 플랫폼이



가상 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이미지를 현실세계처럼 체험한다

다. 사용자는 메타버스 컨셉에 맞도록 레고 형태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한다. 현재의 로블록스는 주가가 최고치의 1/4까지 떨어져 있지만, 한때 메타버스 시대의 기수라고 여겨져 많은 주목을 받고 주가도 크게 상승했던 회사다. 이 회사의 성공은 다른 많은 회사가 자사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일례로 네이버는 각각의 아바타가 소통하고, 소비하며, 놀이와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출시했다. 제페토 같은 플랫폼은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여 아바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곳도 사용자의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서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상담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메타버스 상점의 회사 제품을 하나하나 골라보다 구매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정보만 나열된 홈페이지보다 구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메타버스 개념에 맞춰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는 메타버스 환경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바라는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자사의 기본 서비스뿐 아니라 게임을 비롯하여 다른 회사의 서비스도 다양하게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 간 협력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와 교회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메타버스의 미래를 두 가지로 예견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의 의도대로 크게 성공하여 인터넷처럼 모두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3D TV처럼 한때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이다.

어느 예견이 맞을지 두고 봐야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의 특성을 보면 교회와 선교에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교회가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이던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이 있었다. 각자 자신의 다른 삶을 가상 공간에서 살아 보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으로 가상 교회를 실험하기 위해 바보교회(Church of Fools)를 4개월간 운영했다.

바보교회는 참가자들이 3차원 아바타 형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기대보다 수요가 많아 가입자가 4만 명 넘었다. 실험 기간 4개월 후에 폐쇄하려고 했으나 참가자들의 요청이 커서 결국 2006년 <세인트 픽셀>이라는 이름의 정식 교회를 열게 된다.

이 실험에서 디지털 기술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4만 명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회 공간도 필요하고, 다양한 시스템도 필요하므로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단 4개월 만에



세컨드 라이프의 <바보 교회> (출처 : Church of Fools)

이것을 달성했다. 시공간 제약이 없어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인을 디지털 환경에 들어오게 한다면 아프리카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능하다. 몸이 아프거나 대인기피, 주말 근무 등으로 물리적 교회 참석이 어려운 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온누리교회의 <가상현실(VR) 선교체험관>이 있다. 앞서 설명한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방식이다. 시공간을 넘어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메타버스와 교회의 과제

이미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약 없이 온라인 예배 참여를 경험했다. 이러한 기존의 단방향 소통을 넘어, 성도 간의 교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다. 자신의 아바타가 교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현실처럼 예배, 교제, 봉사 등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의 소통을 능가하는 참여 기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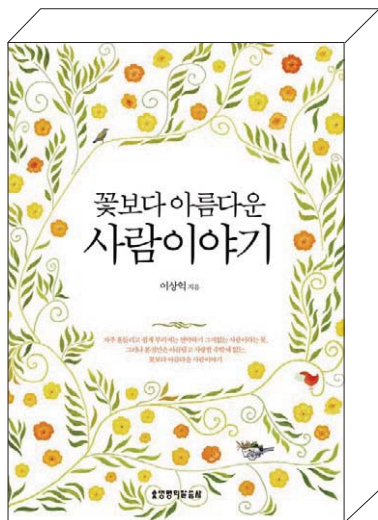
하지만 아바타 간의 소통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데 충분하지는 다양한 실험과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성찬식이 대표적 예다. 메타버스에서의 성찬식이 물리적 예배의 성찬식과 같을 수가 없다. 결국 교회 내 직접 활동과 같은 은혜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과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것이 해결된다 해도, 교회마다 실현가능성이 크게 다르다. 개별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중소 교회



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가 이를 구현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각각의 교회가 자신의 환경을 저비용으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참으로 중요하다.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여겨,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통로로써 사용할 선교의 도구라는 과제를 안고 메타버스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교회에 들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이다.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을 꾀하는 세상의 기업들도 교회가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메타버스가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야기



이상익 지음 / 생명의말씀사 / 2018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단숨에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상익 교수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며, 진정한 영성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저자인 이상익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신학과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도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도 있고, 여전히 미움과 치고받는 싸움도 있지만 역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라 여깁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람이 아름답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름다움을 찾기 힘들고,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상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인간’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인간의 악한 습성이 점점 드러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기계화되고 있으며 사람의 정을 느끼는 것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사람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단절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혹시 각박한 세상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 관계에 지쳐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신 분, 스스로에 대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 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만남**



신주현 목사
아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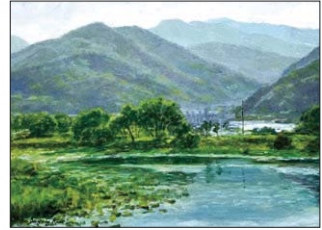
산천

예수에 입문한 농부가 헤진 남방소매에 거뒀한 밀짚모자를 쓰고 먼 산을 바라본다.

초록을 거머쥔 초여름의 햇빛을 온몸으로 흡수할 때, ‘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 섭리에 탄복한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3)

이젠 호미와 삽질을 줄이고, 주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세계를 화폭에 담아 찬양하고 싶다. **만남**



김인용 은퇴집사 _ 성남·분당교구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 배우자 찾기!

영락교회 상담부 결혼정보상담은 크리스천 초혼·재혼 남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매칭시켜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원하는 대상을 엄선하여 1:1 만남을 주선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타교회 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및 장소

주일 10:30~16:30 봉사관 3층 상담부

결혼정보상담 02)2268-2121, 2126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홈페이지)-자료실

안수집사회, 말씀묵상수련회 가져



안수집사회(회장 최범용 안수집사)는 6월 4일(토) 영락 기도원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2022년 말씀묵상수련회를 가졌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마태복음 9:14~17)이라는 말씀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관성에 젖어 생명력을 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

고 행하는 교회 활동의 의미를 되돌아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위임목사는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안수집사들이 삶의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매일매일 공급되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또 삶의 고백이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제23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 강사·봉사자 공모

제3남선교회(회장 조원형 집사)는 오는 7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2박 3일간 <제23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이하 인해선)>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인해선은 선교부와 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농어촌 목회자, 군선교 사역자 등 총 35 가정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 동영상제작/편집, 온라인예배방송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교육함으로써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

이번 인해선은 의료봉사도 병행하며, 교회 인근 나인트리호텔을 숙소로 정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인해선 봉사단원을 IT교육 도움강사와 자원봉사자



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으며 봉사단원에게는 NFT 멤버십을 발행해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제3남선교회 010-3901-3199

제공 제3남선교회

2022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서 열려



지난 6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2022년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선교대회가 열렸다. 이는 1982년에 시작하여 올해 41회를 맞이한 선교대회로서 이미숙 회장(영락교회 권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손윤탁 목사(남대문 교회)의 “계속해야 합니다(디모데전서

4:16)”라는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여전도회연합회 회원들의 결단과 헌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말씀으로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여전도회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으로 전해졌다.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는 여전도회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국내외 선교

및 군 선교 등 여러 곳의 선교지를 두고 있다. 서울의 80여개 교회가 회원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24개 교회 400여명이 참석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권사회, 2022 실행위원 및 지회 임원 수련회 개최

권사회(회장 김영하 권사)가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0시 영락기도원에서 실행위원 및 지회 임원 180여 명이 참석하여 권사수련회를 가졌다.

1부 경건회는 김영하 회장의 인도로 권사회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오병훈 목사(마포·영등포교구)가 ‘놀라운 권사회(창세기 15:1~14)’의 제목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권사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2부 순서는 전재량 전도사가 레크리에이션 I, II 부를 진행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때를 지내던 권사들은



오랜만에 박장대소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기쁨으로 권사회 섬기기를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창립 70주년 학교법인 영락학원 감사찬양제 성황



지막 무대는 찬양자 모두가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합창으로 은혜롭게 대미를 장식하며 감격의 찬양제를 마쳤다. 이날 영락학원 이사장 김운성 목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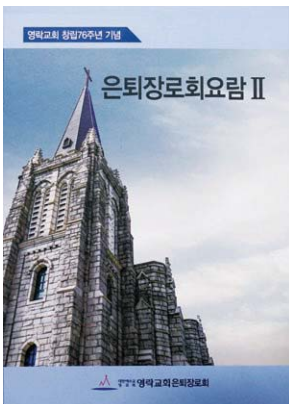
영락학원은 6·25전쟁으로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영락학원 감사찬양제가 6월 9일 오후 7시30분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감사찬양제는 서울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박신화 장로)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주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중등부 여호수아찬양대, 조이플 시너즈 리틀 앙상블, 교장 선교합창단, 영락중 교사합창단, 바리톤 이정근 독창, 솔리데오 장로합창단, 영락고와 영락의료과학고 연합합창단이 참여하여 찬양과 율동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

피난 떠났던 청소년들이 미처 복교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거리를 방황할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성경구락부 중등부'를 1952년 6월 10일 우리 교회 베다니 건물에 개설하여 시작된 학교이다.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이 훼손된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설립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학교로 회복시켜 나가도록 도전 받는 자리가 되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은퇴장로회 요람 II 발간



영락교회 은퇴장로회(회장 김규홍 은퇴장로)가 <은퇴장로회요람 II>를 발간했다. 은퇴장로회는 1999년 1월 6일 출범하여 2010년에 <요람 I>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12년 만에 새로 펴낸 <요람 II>에는 은퇴장로 한분 한분 걸어오신 삶의 수고와 몸된 교회를 섬겨온 신앙의 이력들이 담겨있다. 우리 교회 은퇴장로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늘 기도로 섬기고 있다. <요람 II>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집위원들의 1년간 노력으로 완성하였다.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한 김충손 은퇴장로는 시무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좋은 귀감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2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2년 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5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 사모들과 선교사 사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예배 시간에 김운성 위임목사가 “아론의 아내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닫는 예배 시간에 신 원로목사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강의를 주선영 목사(대구칠곡교회), 권은미 목사(영성나무), 박순희 원장(방주교회 영성훈련원)이 영성과 사모의 정체성에 관해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사모 영성수련은 고요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와 강의, 나눔을 하는 침묵 영성수련이다. 참석한 수련자 중 한 분은 “사모의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은혜를 준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제공하고 섬겨 주신 영락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제공 영락수련원

교우동정

최은오 안수집사, 월드비전 ‘밥피어스 아너클럽’ 회원위촉

우리 교회 최은오 안수집사((주)에이시스템 대표이사)가 지난 5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밥피어스 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최 집사는 월드비전 후원자로서 2014년부터 해외아동 3명을 후원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잠비아 등 여러 국가 80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북지원사업 후원에도 동참하여 주위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밥피어스 아너클럽(Bob Pierce Honor Club)은 월드비전의 창립자인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이다. 누적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인 후원자로,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선 회원들을 위촉하여 후원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이다.

7월 목회력

6월 27일(월)~7월 2일(토)	하반기맛이 특별새벽기도회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청년부·사랑부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10일(주일)	제직회
24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심방준비회
25일(월)~27일(수)	산상기도회 1차

※ 7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나호 정답 다른그림찾기



2022년 7월호 통권 581호

발행 2022. 7.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정주리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 해보아요

미로찾기



교육부 여름사역

영아부	7월 2일(토)~3일(주일) “찾았다~ 하나님나라!”(마가복음 1:15)	유치부실, 영아부실
유아부	7월 9일(토)~10일(주일) “찾았다~ 하나님나라!”(마가복음 1:15)	유아부실, 드림홀
유치부	7월 16일(토)~17일(주일) “찾았다~ 하나님나라!”(마가복음 1:15)	드림홀, 유치부실, 베다니광장
사랑부	8월 12일(금)~14일(주일) “전신갑주를 입고 행진하자”(에베소서 6:13)	원주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유년부	7월 22일(금)~24일(주일) “비교하지 않아요”(에베소서 2:10상)	드림홀, 50주년기념관 2,3층
초등부	7월 29일(금)~31일(주일) “비교하지 않아요”(에베소서 2:10상)	강화 그레이스힐
소년부	7월 29일(금)~31일(주일) “비교하지 않아요”(에베소서 2:10상)	딱따구리연수원 (경기 양주)
Cebc	8월 19일(금)~20일(토) “Monumental : Celebrating God's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념해요”(시편 66:5)	영락기도원
중등부	7월 29일(금)~31일(주일) “Things of heaven”(골로새서 3:2~3)	박달재수련원 (충북 제천)
	8월 10일(수)~13일(토) 비전트립	여수, 증도
고등부	7월 28일(목)~30일(토) “하나님 나라와 복음”(창세기 50:19~20)	충주 한마음연수원
	8월 10일(수)~13일(토) 비전트립: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20)	제주도
베드로부	7월 2일(토)~3일(주일) “피로회복”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히브리서 10:19~20)	영락기도원
대학부	7월 20일(수)~22일(금) 농촌전도봉사	충남 보령 신덕교회 인근마을
	8월 11일(목)~13일(토) “Go Back to the Future” (학개 2:9)	영락기도원
청년부	8월 16일(화)~20일(토) 하기선교봉사 “Run On :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질주” (사도행전 20:24)	충남 홍성, 보령



제62회 산상기도회

주제 : 행진하여 가라(신명기 1:6~8)

대회장 : 김운성 위임목사

장소 : 영락교회 본당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행진하여 가라'는 비전을 따라 노력하며 상반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준비하고 영과 육이 재무장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62회 산상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과 가정, 교회에 행진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차 2022년 7월 25일(월) ~ 7월 27일(수)



강사: 림형석 목사(평촌교회)

집행위원장: 김성현 장로

참여교구: 강동·송파교구, 성동·광진교구, 중구·용산교구, 관악·동작·금천교구,
동대문·중랑교구, 마포·영등포교구, 강북·도봉교구, 고양·파주교구,
안양·수원교구

2차 2022년 8월 1일(월) ~ 8월 3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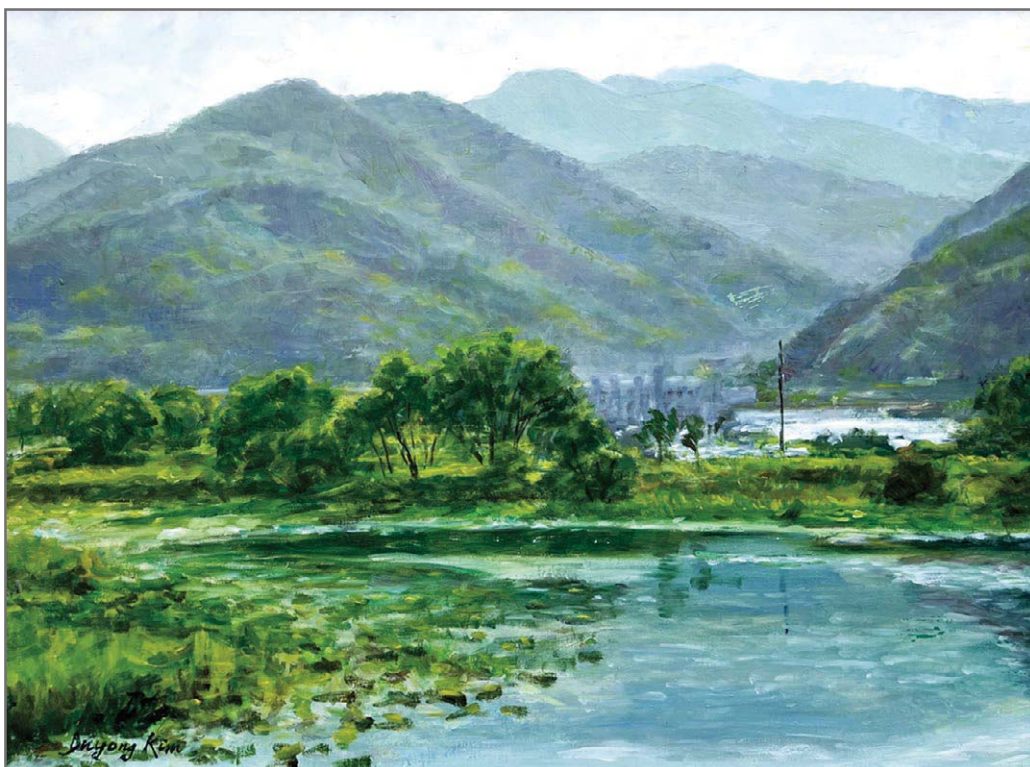
강사: 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집행위원장: 이용희 장로

참여교구: 강남교구, 강서·구로·양천교구, 서대문·은평교구, 종로·성북교구,
노원교구, 서초교구, 인천교구, 성남·분당교구, 용인·화성교구

영락화랑

산천



김인용, Oil on canvas, 83×63cm, 2020년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3)